

제조업 여성인력부족

산업구조 개편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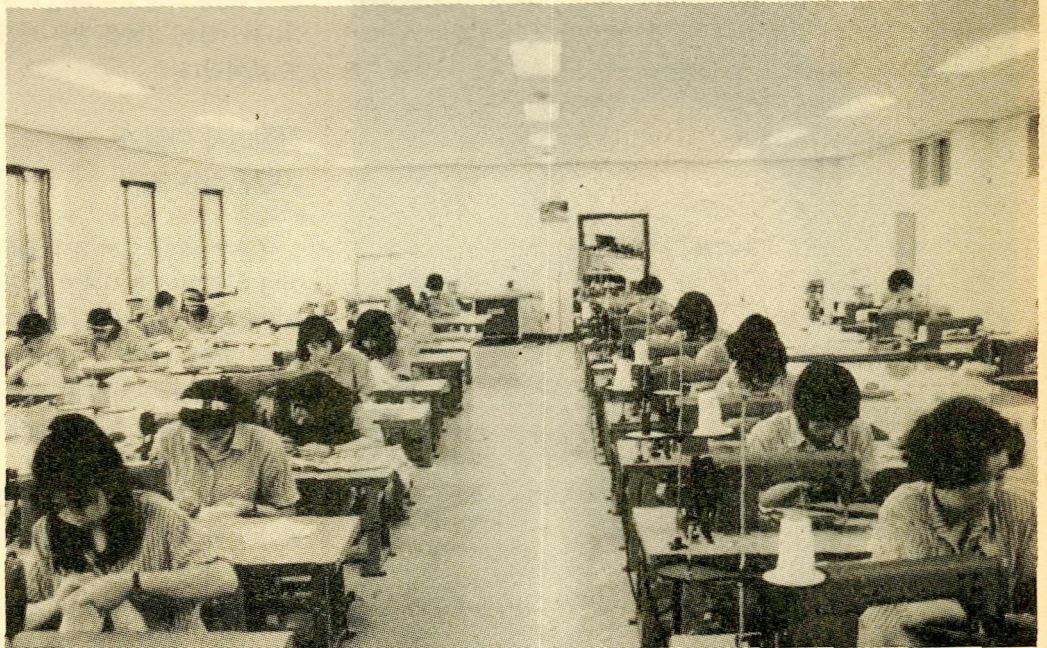
서비스 분야 급격히 팽창

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 부족 현상은 서비스 분야의 팽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이 펴낸 <제조업의 성별고용변화연구>에 따르면 여성고용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해 86년~90년 사이에 1.3%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전체 고용증가율이 지난 70년대 전반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40%대를 기록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즉 제조업분야의 고용둔화현상이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단순한 노동공급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노동력 수급 구조에 원인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

제조업부문의 여성고용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주된 요인은 제조업분야의 상대적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높은 이직율에 있다. 또한 20~24세의 연소연령층의 제조업 진출 기피 현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현재 1.3% 대로 감소추세에 놓여 있다.

이 더 두드러진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내의 여성고용감소는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 사실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사업에서도 드러나 거시적인 차원의 여성고용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된다. 즉 이 연구에 의하면 전 산업에 걸쳐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직·전문직·사무

직·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75년 7.7%에서 90년 24.2%로 '급증', 전체 여성직종의 구조가 변화한 것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산업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 산업화한 추세를 반영한 일례. 이 연구에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89년~90년 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여성근로자 수는 3만2천6백74명인 반면 서비스업에

서 제조업으로 유입된 인력은 1만8천3백26명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1만4천3백48명이 순수하게 서비스업으로 유출돼 나간 것.

전반적인 여성직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제조업 서비스부문간의 현격한 노동력 수급 불균형양상은 특히 제조업 부문에 '생산 자동화'가 도입된 이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의 생산자

동화는 결과적으로 자동화가 어려운 단순반복적 공정을 남겨 놓고, 이는 저임노동의 여성들로 '대체'가 가능했던 점에서 일반적인 여성고용비 감소율과는 무관하다는 것.

그러나 이런 현상 역시 여성 전문인력보다 단순한 여성의 '손'만 필요로 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여성저임금, 고용구조의 불안정을 부채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연구논문에 의하면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구인난과 특히 심한 여성고용둔화라는 피상적 현상만을 보고 주먹구구식의 제조업 여성인력 유인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산업전반에 걸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토대로 한 여성인력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제언한다.